

가계의 신규부채수요 결정요인과 부채이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 Demand for Credit and
the Effects of Credit on Consumption Expenditures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가정학과
강사 최현자

Dept. of Home Economics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Seoul National Univ.
Lecturer: Hyuncha Cho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방법 |
| II. 선행연구의 고찰 | V. 결과와 논의 |
| III. 연구모형 | VI. 결론 및 제언 |
|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 demand for credit and to test the effects of credit outstandings and credit repayments on consumption expenditure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redit use and consumption expenditures, a theoretical consumption expenditure model including credit outstandings and credit repayments is developed. With 1991 Report of 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two empirical models are tested using OLS. The results show that household demand for credit is determined by household income, debt burden, household size, age and squared age of household head and ratio of home ownership. It is also found that credit outstandings affect consumption expenditures positively while credit repayments affect consumption expenditures negatively.

1. 서 론

“월부 좋아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옛말이 있다. 과거 소비자들이 지닌 부채이용에 대한 인식을 함축한 의미로서, 가계의 부채이용은 비합리적인 행동이며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시에만 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채이용에 대한 인식은 점차 변화하였으며 켈지(Kinsey)와 레인(Lane)(1978)의 실증연구에서는 부채이용으로 인해 각 가계가 인지한 복지수준이 더 낮아지지 않으며 오히려 직접적인 효용을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채를 사용함으로써, 효용을 증대시켜 어느 범위 내에서의 부채이용은 가계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셔(Fisher)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이론적인 측면에서 가계의 부채이용의 긍정적인 면을 제시하였는데, 기간간(期間間) 효용극대화 이론(Fisher, 1930)에 의하면 소비자는 기간간의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간간에 자원을 배분하게 되며 전생애에 걸쳐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현재의 회귀 소비수준에 비해 낮을 경우, 미래 소득을 이용한 차용을 통해 현재소득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즉 가계의 부채이용은 가계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일시적인 소득감소를 경험할 때 소득경감이 자신의 생활수준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채를 이용하고자 하며 이러한 차용행동은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도 일어날 수 있다.

히렌덴(Herendeen)(1974)은 가계를 소비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자로 보고 기업이 이윤증대를 위한 생산서비스의 확장을 위해 차용을 하는 것과 같이 가계도 소비서비스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차용을 함으로써 가계의 효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의 가계부채 이용도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도시가구의 경우 1988년 가구당 연평균 부채보유액이 118만원에서 1995년에는 413만원으로 지난 7년 사이에 무려 3.5배의 증가를 보였다(한국은행, 1990 :

중앙일보, 1995년 10월 30일). 이러한 증가추세는 신용카드 이용의 확산, 신용대출과 같은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보급으로 인해 용이해진 금융권을 통한 신용이용, 그리고 저리 혹은 무이자할부를 제공하는 내구재 판매기업의 증가와 할부금융업체의 설립에 대한 정부의 인가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급속한 가계의 부채이용 증가로 제기되는 연구문제는 과연 어떠한 요인들이 부채 수요에 영향을 미치며 가계의 부채이용이 가계의 소비행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가계의 차용행동이나 특히 차용행동이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차용행동에 관한 것으로 성영애와 양세성(1995)이 1990년 가계금융이용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부채보유여부와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 거의 유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가계의 부채이용증가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 가계의 부채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가계의 부채이용이 가계의 소비지출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가계의 부채이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구매력에 있어 각기 다른 효과를 지닌 기존의 부채보유액과 신규부채이용액을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가계의 부채이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과거의 차용행동의 결과로서 현재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로 부채의 저장(stock)을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신규부채이용으로 현 회계기간 동안 가계가 새로이 차용한 부채로서 유량(flow)의 개념이다. 가계의 소비생활에 있어 전자는 총부채보유액으로 가계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며 보유부채로 인해 일정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고정지출 항목인 지불이자 혹은 상환금(월부금)은 현재의 자유재량소득을 감소시킴으로 결국 소비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채를 어느 특정기간내의 신규차용액으로 정의하였을 경우 이러한 차용액은 같은 기간 내에 소비자가 이용 가능한 자원의 증가 즉 구매력

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부채는 이 시기의 소비지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계의 신규부채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소비지출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기존 부채보유액과 신규부채수요를 소비지출함수에 포함시킨 인구모형을 개발하여 이들이 가계의 소비지출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건전한 가계의 차용행동과 소비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1. 가계의 부채수요

미국의 경우 최근 수십 년간 급증하고 있는 가계의 부채수요를 설명하기 위해 미시와 거시수준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대부분의 거시수준의 연구는 총가계부채나 소비자부채의 증가에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Smith, 1979; Luckett & August, 1985; Paquette, 1986; Pearce, 1985; Pollin, 1988, 1990).

각 가계를 대상으로 한 미시적인 연구는 담보부채보다는 주로 소비자부채의 이용에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한 부류는 한 시점에서의 지량의 관점에서 부채수요에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고자한 연구들이다(Avery, Elliehausen, & Canner, 1984; DeLuca & Bowers, 1985; Hira, 1990; Sullivan & Worden, 1986; Wasberg, Hira, & Fanslow, 1992; Watts & Tobin, 1960).¹⁾ 이들의 연구결과를 통해 가계의 부채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담보부채보유액의 경우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가구원수는 담보부채보유액과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가계소득의 증가에 따라 담보부채보유액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구주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담보부채보유액은 증가하였으나 어느 연령층 이상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소비자부채보유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성별, 결혼 및 취업상태와 총자산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소득, 가구원수 및 총자산은 소비자부채보유액과 양의 관계를 그리고 가구주연령은 음의 상관 혹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소비자부채보유액이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는 이차곡선형의 관계를 보여 주었다.

다른 한 부류의 연구는 일정기간 동안의 유량의 관점에서, 소비자 포트폴리오의 구성과 관련하여 부채수요를 연구한 것들로 와츠(Watts)와 토빈(Tobin) (1960) 이후 소수의 연구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부채와 자산에 대한 수요의 연계성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Bryant, 1986; Choe & Johnson, 1992; Dunkelberg & Stafford, 1971; Watts & Tobin, 1960). 요약하면 이론적 모형으로 재조정가설(Stock adjustment hypothesis)에 근거한 연구들로서, 가계의 신규부채이용은 거래비용이나 가계의 습관 또는 자산계정(capital accounts)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계정의 조정과정(adjustment process)으로, 가계의 경제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기존 부채보유액이나 자산 보유액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결론지었다.

끝으로 우리 나라 가계의 부채이용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도시가계의 부채보유여부와 부채부담의 관련요인을 규명한 성영애와 양세정(1995)의 연구가 있으며 도시가계금융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도시가계의 평균부채보유액을 부채상환기간으로 나눈 월평균부채상환액이 월평균가계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된 부채부담은 가계소득, 금융자산, 부채원의 수, 가구주직업 및 거주지역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1) 가계부채는 부채이용시 담보의 유무에 따라 크게 담보부채와 소비자부채로 나눌 수 있으며 소비자부채는 부채상환방식에 따라 할부부채와 비할부부채로 나뉜다.

2. 가계의 부채이용과 소비지출행동

가계의 부채이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부채가 내구재의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데 집중되어 왔다(Fisher, 1962; 1963; Hamburger & Zwick, 1977; Luckett, 1980; Mishikin, 1977; Toal, 1986/1987; Tobin, 1957; Wyss & Helferich, 1986). 몇몇 연구들이 비내구재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부채의 영향을 연구하였으나 이들 또한 식료품비만을 다룬 것이며(Courtless, 1971; Raymond & Capps, 1994) 좀더 포괄적인 연구인 헤이스(Hayes)(1989)와 심영(1993)의 경우 미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비목별 소비지출 비중과 소비패턴에 미치는 부채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중 몇 편의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코트리스(Courtless)(1971)의 경우 소비자부채의 이용은 식료품에 할당할 수 있는 예산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식료품비 지출의 감소 분으로 할부부채상환을 위한 고정지출을 충당하리라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채상환액이 1달러 증가할 때 식료품비지출은 7센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입증하였으나 이러한 부채의 효과는 가계의 유형, 규모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 저소득계층의 경우 오히려 부채상환액이 식료품비지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적인 관계에 대해 코트리스는 가계의 저축과 신규부채의 이용으로 설명하였다. 즉 소득 감소시 가계는 이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므로 최소한 과거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저축이나 부채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할부부채가 식료품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또다른 연구(Raymond & Capps, 1994)에서는 위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가처분소득중 할부부채의 비율이 식료품비지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주었으며 이 비율의 1%증가가 총 식료품비 지출의 0.15%를 증가시키는 장기효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단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할부부채비율이 식료품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데는 평균 6개월이 걸림을 보여주었다.

토알(Toal)(1986/87)은 할부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개념적인 모형을 설정하고 씨어스(Sears)사의 내구재판매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그는 할부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효과(income effect), 재산효과(wealth effect), 및 질적 효과(quality effect)로 나누었는데 즉 소득효과는 부채상환을 위한 지출로 인해 자유재량소득이 감소함으로써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재산효과는 부채보유액으로 인한 자산의 감소로 인해 소비가 감소하는 것을 시사하고 높은 부채비중과 부채비상환으로 인해 부채이용이 제한됨으로 발생하는 소비의 감소를 질적 효과라고 가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소득효과와 재산효과는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질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가정 하에서 수행된 연구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단정짓기 힘들며 좀더 적합한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헤이스(1989)는 부채이용이 예산제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시적인 소득 경감도 부채이용이 가능할 때 소비패턴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소득탄력성은 근로소득탄력성과 부채이용으로 인한 소득탄력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소비자수요모형에 부채의 이용이 소비패턴에 미치는 효과까지 포함시키는 수요모형의 개발을 역설하고 디튼(Deaton)과 뮐러바우어(Mullerbauer)의 AIDS모델에 근거하여 이론적인 모형을 수립하였다. 실제 부채이용액 대신 예상치 못한 소득의 감소를 일차로 추정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각 비목별 소비지출에 미치는 부채이용의 효과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 단기에서는 소득감소로 인해 총소매판매중 식료품판매의 비중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피복신발, 자동차 및 관련부품과 기타 내구재에 대한 지출 비중은 예상치 못한 소득 감소와 정적인 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인 소득 감소가 발생할 때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의류와 내구재와 같은 품목은 신용을 이용하여 구매할 수 있으나 식료품의 경우 신용을 이용한 구매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고 하였다. 자동차연료비나, 가계운영비, 교통서비스 및 기타 비내구재의 경우 예상치 못한 소득 감소와 부적인 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품

목의 구매시 신용카드 이용이 어렵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헤이스는 소비패턴은 일시적인 소득감소와 관련되어 있으며 부채의 이용가능성이 소득 감소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력의 결정요인이라고 결론짓고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부채상환액은 하나의 지출항목으로 신규부채이용액은 소득의 형태로 수요식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제안하였다.

부채가 개별가계의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포괄적으로 규명한 연구로 심영(1991, 1993)은 1988년의 미국 가계소비지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부채부담이 총소비지출과 소비패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부채부담은 조사기간 초기에 가계가 지닌 총 소비자부채 보유액으로 정의하고 평균액을 이용하여 부채부담이 전혀 없거나, 평균액보다 작거나 혹은 많은 세 집단으로 조사가구를 분류한 다음 부채부담이 적은 가계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각 집단의 소비패턴을 비교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부채부담은 총소비지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한 가설과는 반대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다른 조건들이 동일할 때 총소비지출의 소비자부채탄력성은 0.062로서 소비자부채보유액의 10%상승시 소비지출이 0.6% 증가함을 의미한다. 소비자부채부담은 각 소비비목별 지출패턴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으나 소비자부채부담이 소득탄력성이 낮은 소비지출비목(식비, 주택, 연료, 전기 및 상수도, 가계운영, 기타교통, 보건위생, 개인비)의 지출비중과는 정적인 관계를 지니며 소득탄력성이 높은 소비지출비목(외식비, 가구 및 집기, 피복, 세탁 및 수선, 자동차, 교육, 오락 및 문화생활, 보험, 기타잡비)의 지출비중과는 부적인 관계를 지닐 것이라는 가설은 기타교통비에서만 입증되었다. 결론적으로 부채를 지닌 가계가 오히려 비재량적인 소비항목에 할당하는 예산의 몫을 더 많이 감소시키며 다양하고 자유재량적인 소비패턴을 나타냄으로써 부(富)지향적인 소비패턴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가계의 부채이용이 소비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서로 일치하지 않은 연구 결과의 일부는 변수로 이용한 부채에 대한 조작적 정의

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소비지출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기존 부채보유액과 신규부채수요를 소비지출함수에 포함시킨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이들이 가계의 소비지출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III. 연구모형

1. 가계의 부채수요 모형

기간간 효용극대화이론에 의하면 소비자는 적정 소비수준을 전 생애에 걸쳐 유지하고자 하며 비지속적인 소득으로 인해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이전의 저축을 이용하거나 혹은 차용을 함으로써 이를 해결한다(Bryant, 1990). 이러한 일련의 자원배분과정은 소비자의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며 현재의 경제적 상태와 가족 특성에 따라 회구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에 직면하게 된다. 기간간효용극대화 이론에 따르면 부채수요에 대한 가계의 의사결정은 가계 자원과 시장이자율 및 소비자의 시간선호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D_{it}^* = f(R_{it}, r_{it}, HC_{it}) \quad (1.1)$$

여기서 D_{it}^* 는 t해에 가계 i가 보유하고자 하는 부채액이며 R_{it} 와 HC_{it} 는 각각 그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시간선호를 그리고 r_{it} 는 가계 i가 이용하고 있는 부채의 시장이자율을 의미한다.

하지만 가계의 부채보유액이 회구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고조정가설에 의하면 회구 수준으로의 조정은 회구 수준과 실제 보유량의 차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역동성을 보여준다(Choe, 1992에서 재인용). 즉 신규부채수요는 회구 수준과 실제 보유량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간단히 함수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D_{it} - D_{i(t-1)}) = p(D_{it}^* - D_{i(t-1)}), \quad 0 < p < 1 \quad (1.2)$$

여기에서 D_{it} , $D_{i(t-1)}$, 및 D_{it}^* 는 각각 t 와 $t-1$ 시기의 부채보유액과 회귀량이며 p 는 자기조정율을 나타낸다. 현실에서 회귀부채보유수준을 직접 관측하기란 불가능하므로 (1.1)를 (1.2)에 대입하여 다음의 관계를 도출하였다.

$$\Delta D_{it} = D_{it} - D_{i(t-1)} = f(R_{it}, r_{ijt}, HC_{it}, D_{i(t-1)}) \quad (1.3)$$

즉 가게의 신규부채수요(ΔD_{it})는 가게자원, 부채의 시장이자율, 가게의 시간선호도 및 이전 기간까지의 부채보유량에 의해 결정된다. 만일 자본시장이 완전하다고 가정한다면 일정 기간 내에서 모든 가게가 이용한 부채의 시장이자율은 동일하므로 (1.3)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으며 가게가 회계기간 t 에 이용한 신규부채는 가게자원과 시간선호 그리고 기존부채보유량에 의해 결정된다.

$$\Delta D_{it} = f(R_{it}, HC_{it}, D_{i(t-1)}) \quad (1.4)$$

2. 가게의 부채이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

기간간의 자원배분을 다룬 기간간효용극대화이론에 따라 현재의 소비지출은 이용 가능한 가게자원(R_{it})과 시장이자율(r_{it}) 및 가게의 특성으로 대변되는 가게구성원의 시간선호(HC_{it})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가게 i 의 총소비지출 혹은 특정비목 j 에 대한 소비지출(C_{ijt})은 다음과 같은 함수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C_{it} \text{ \& } C_{ijt} = f(R_{it}, r_{it}, HC_{it}) \quad (2.1)$$

앞절과 같이 가게는 불완전한 자본시장에 의해 제약 받지 않으며 주어진 생애자원을 가지고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며 소비지출 비목에 따라 가게가 일관된 시간선호를 나타낸다고 가정하면 소비지출은 가게자원과 j 차침자를 제거한 시간선호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즉,

$$C_{it} \text{ \& } C_{ijt} = f(R_{it}, HC_{it}) \quad (2.2)$$

여기서 완전자본시장이란 가정은 동일한 이자율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자본을 차용할 수 있거나 혹은 대부해줄 수 있는 자본시장을 의미한다(Hayes, 1989). 그러므로 각 가게가 한 예산기간동안 이용 가능한 가게자원은 현재의 소득(Y_{it})과 비인적자산(W_{it-1}) 뿐만 아니라 그 기간에 이용가능한 차용액(ΔD_{it})까지도 포함한다. 즉,

$$R_{it} = Y_{it} + W_{it-1} + \Delta D_{it} \quad (2.3)$$

가게부채는 어느 일정기간 동안에 이용 가능한 부채이용액(신규부채수요)과 이전에 차용한 부채보유액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 이는 신규부채수요는 동기간에서의 자원의 증가를 의미하며 부채보유액은 부채상환을 위해 지출해야 하므로 현재 이용 가능한 자원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비인적자산을 가게가 보유한 자산(A_{it-1})과 부채(D_{it-1})의 차이로 정의함으로써 식(2.3)에 포함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W_{it-1} = A_{it-1} - D_{it-1} \quad (2.4)$$

$$R_{it} = Y_{it} + A_{it-1} - D_{it-1} + \Delta D_{it} \quad (2.5)$$

여기서 가게는 예기치 않은 소득의 감소나 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의 소비지출을 위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여 이용하는 대신 자산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재산소득: $WY_{it} = rW_{it-1}$)을 사용하며 부채보유액 또한 어느 특정기간내에 부채보유액 모두를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상환기간에 따라 매 회계기간마다 이자와 원금의 일부분($DP_{it} = pD_{it-1}$)만을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2.5) 즉 현재 이용 가능한 가게자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²⁾

$$R_{it} = Y_{it} + WY_{it} - DP_{it} + \Delta D_{it} \quad (2.6)$$

따라서 (2.6)를 (2.2)에 대치하여 다음의 (2.7)을 얻었다.

$$C_{it} \text{ \& } C_{ijt} = f(Y_{it}, WY_{it}, DP_{it}, \Delta D_{it}, HC_{it}) \quad (2.7)$$

2) 심영(1993)도 가게의 소비행동은 가게가 보유한 총부채액보다 오히려 가게가 매달 지불해야 하는 이자 및 원금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큼으로 가게의 월지불부채상환액을 변인으로 한 소비패턴 연구를 제안하였다.

즉 가계 i 가 회계기간 t 에 이용한 총소비지출 및 소비비목 j 에 대한 소비지출은 가계 i 가 지닌 현재의 인적소득, 재산소득, 부채상환액, 신규부채수요, 및 가계의 시간선호에 의해 결정된다.

3. 연구가설

선행연구의 고찰과 이론적인 모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1: 가계의 신규부채수요는 가계자원과 시간

선호 그리고 기존부채보유량에 의해 결정된다.

가설 2: 신규부채수요는 소비자가 이용 가능한 자원의 증가 즉 구매력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신규부채수요는 가계의 총소비지출 및 소비비목별 지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3: 부채상환액은 현재 이용 가능한 자원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부채상환액은 가계의 총소비지출 및 소비비목별 지출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4: 총소비지출 및 소비비목에 대한 소비지출은 현재의 인적소득, 재산소득 및 가계의 시간선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IV.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발간한 1991년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의 소득계층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가구소비실태조사는 1991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조사로서 도시가계조사나 농·어가경제조사와는 달리 비도시지역의 비농가와 1인가구를 포함한 전국 전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국의 표본조사구내에 있는 약 32,000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과 소비실태, 내구재 보유현황 및 연간소득 등을 파악하였으며 이는 전국의 전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조사자료중 근로자가구만을 이용하였다. 즉 시부와 군부의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가구의 소

득계층별 자료와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가구의 시부, 군부, 서울, 5개시 및 9개도의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계층별 자료로서 관측 수는 총 79개이다. 부채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65개의 소득계층별 평균자료가 이용되었다.

2. 변수 및 실증분석모형

가계의 부채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모형에서는 종속변수가 신규부채이용액으로 각 가계가 회계기간(월단위)동안 새로이 이용한 부채의 총액으로 정의하였으며 가계수지항목의 기타수입항목중 월평균 '빌린돈'과 '할부 및 외상'의 합을 이용하였다. 설명변수는 가계의 자원 및 시간선호도와 이전기간까지의 부채보유액이다. 가계의 자원은 재산소득을 포함한 총가계소득으로 정의하였다. 부채이용에 대한 가계의 시간선호는 직접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선호와 관련이 있는 몇몇 측정 가능한 변수를 통해 시간선호가 부채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해야 한다(Watts & Tobin, 1960). 따라서 시간선호의 대리변수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본 자료에서 이용 가능한 가구원수, 가구당 평균취업인수, 가구주의 평균연령 및 자가보유율을 이용하였다. 가구주연령이 부채수요에 미치는 선행연구에서 이차함수관계를 나타냄으로서 가구주연령의 제곱항을 포함시켰다. 이전기간까지의 부채보유액에 대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부채상환액은 기존의 부채보유액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정 하에 한기간 이전의 부채보유액 대신 부채상환액을 이용하였으며 부채상환액은 신규부채수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설명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가계소득과 월지불부채상환액간의 단순상관계수가 0.942로 매우 높게 나타나 부채상환액 대신 가계소득중 월지불부채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부채부담으로 명명하였다. 월지불부채상환액은 가계부채중 각 가계가 매월 일정하게 지불해야 하는 부분으로 부채이용비용이라 할 수 있는 '이자'와 '월부

및 외상 값은 금액' 및 '빌린 돈 값은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가계의 부채수요를 설명하는 실증분석모형은 다음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여러 형태의 함수관계를 검증해본 결과 양대수(double log)선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ln \Delta D_i = a_0 + a_1 \ln TY_i + a_2 \ln DPR_i + a_3 HS_i + a_4 EMP_i + a_5 AGE_i + a_6 AGE_i^2 + a_7 OHR_i + \mu_i \quad (1)$$

여기서 $\ln \Delta D_i$ 와 $\ln TY_i$ 및 $\ln DPR_i$ 는 각각 i 번째 소득계층의 월평균 신규부채이용액과 가계소득 및 부채부담의 자연대수형이며 HS_i , EMP_i , AGE_i , AGE_i^2 및 OHR_i 는 각각 i 번째 소득계층의 평균 가구원수, 취업원수, 가구주연령, 가구주연령의 제곱 및 자가보유율이다. a_1 - a_7 은 회귀계수이며 a_0 와 μ_i 는 각각 상수항과 오차항이다.

가계의 부채이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모형에서는 종속변수를 총소비지출 및 각 소비비목별 지출액으로 정의하였다. 소비지출비목은 도시가계연보의 분류기준인 9대 비목을 기준으로 식료품비는 최근 지출액 및 지출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외식비와 외식비 이외의 식료품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우리 나라의 특징적인 소비구조를 반영하는 교육비와 잡비 그리고 1980년대 후반 이후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는 개인교통비 등의 세목을 포함한 13개 비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설명변수는 가계자원변수인 가계의 현재소득, 재산소득, 부채상환액 및 신규부채이용액과 가계의 시간선택변수가 포함되었다. 현재소득은 가족구성원의 인적소득을 의미하며 총가계소득에서 재산소득을 제한 것으로 가족구성원의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과 기타소득이 포함되었다. 재산소득은 이자 및 배당금과 임대료를 합한 금액으로 정의하였다. 신규부채이용액의 정의는 첫 번째 연구모형에서와 동일하며 부채상환액 또한 인적소득 및 재산소득과의 높은 상관으로 인해 부채수요모형에서와 같이 부채부담 변수를

대신 이용하였다.³⁾ 가계의 시간선택의 대리변수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가구당 평균가구원수와 가구주 평균연령만을 이용하였다. 모든 자료는 소득계층별 평균치로서 연속된 값을 지닌 변수로 이용되었으며 가계의 부채이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실증분석모형은 다음 식(2)와 같은 양대수(double log)선형을 취하였다.

$$\ln C_i \text{ \& \ } \ln C_{ij} = b_0 + b_1 \ln Y_i + b_2 \ln WY_i + b_3 \ln \Delta D_i + b_4 \ln DPR_i + b_5 HS_i + b_6 AGE_i + \epsilon_{ij} \quad (2)$$

여기서 $\ln C_i$ 와 $\ln C_{ij}$ 는 i 번째 소득계층의 총소비지출과 j 번째 소비비목에 대한 월평균 지출액의 자연대수 값이며 $\ln Y_i$, $\ln WY_i$, $\ln \Delta D_i$ 및 $\ln DPR_i$ 각각 i 번째 소득계층의 월평균 인적소득, 재산소득, 신규부채이용액 및 부채부담의 자연대수형이며 HS_i 와 AGE_i 는 각각 i 번째 소득계층의 평균 가구원수와 가구주연령이다. b_1 - b_6 은 회귀계수이며 b_0 와 ϵ_{ij} 는 각각 상수항과 오차항이다.

식(1)과 (2)의 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OLS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연구모형의 경우 총소비지출을 구성하는 각 비목별 소비지출액에 대한 일련의 회귀식은 잔차간의 상관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효율적인 회귀계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각 회귀식을 서로 상관되지 않은 하나의 커다란 회귀체계(the system of seemingly unrelated equations)로 간주하여 GLS추정법을 이용한다. 하지만 모든 회귀식에서 동일한 설명변수를 이용할 경우 OLS를 이용하여 각각의 회귀식의 계수를 추정하여도 BLUE(the 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를 얻을 수 있다(Kmenta, 1986).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과 자기상관 및 이분산성을 검증하였으며 회귀모형의 문제점 횡단면자료를 이용한 분석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의 문제는 이분산성이 나타난 회귀식의 경우 OLS의 분산행렬을 White의 동분산행렬로 수정함으로써 해결하였다. 모든 분석은 LIMDEP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3) 인적소득 및 재산소득과 원부채상환액간의 단순상관계수는 각각 0.927과 0.871이었으며 부채부담과 인적소득 및 재산소득간의 단순상관계수는 -0.122와 -0.013으로 나타났다.

V. 결과와 논의

1. 자료의 특성

<표 1>은 가구원 2인이상 근로자가구의 가계특성

및 부채이용실태를 요약한 것으로 가구소비실태조사 보고서에 이용된 자료인 총 22,868가구중 68.9%인 15,765가구가 근로자가구로서 이중 12.5%인 1,651가구가 1인 가구였으며 이중 과반수 이상인 60.5%가

<표 1> 가구원 2인이상 근로자가구의 가계특성 및 부채이용실태

(월평균, 단위: 천원)

가계특성	비율(%)	총가계소득 ¹	총소비지출 ¹	신규부채액 ¹	부채상환액 ¹
전체 근로자가구	67.2	1103.1	755.5	86.6	120.9(10.0) ²
가구원수	(3.96)				
2인	10.4	858.3	535.7	65.6	71.5(8.3)
3인	23.4	989.2	640.4	78.9	109.7(11.1)
4인	39.4	1113.5	777.5	95.3	129.7(11.6)
5인	17.5	1218.4	859.4	89.4	138.5(11.4)
6인이상	9.4	1402.1	1002.6	89.0	134.7(9.6)
가구주연령	(38.7)				
24세이하	3.5	1102.0	750.6	90.6	123.8(11.2)
25-29세	12.4	944.4	602.0	64.0	95.8(10.1)
30-34세	24.0	1026.0	653.5	85.4	123.5(12.0)
35-39세	19.4	1094.9	742.9	91.5	135.1(12.3)
40-44세	14.1	1138.1	855.2	58.7	126.7(11.1)
45-49세	10.9	1197.6	920.5	100.6	116.9(9.8)
50-54세	8.5	1300.4	909.7	54.9	89.6(6.9)
55-59세	5.2	1290.7	879.2	118.8	121.6(9.4)
60세이상	2.1	1057.9	720.9	169.6	72.5(6.9)
가구주교육수준					
무학	1.2	1119.9	771.9	94.3	123.9(11.1)
국민학교	9.4	979.8	671.8	42.9	74.1(7.6)
중학교	15.9	1008.8	678.0	60.8	97.9(9.7)
고등학교	45.2	1038.7	710.6	81.9	108.3(10.4)
전문학교	5.3	1103.9	745.4	103.4	125.0(11.3)
대학교	20.1	1324.9	970.9	112.4	162.0(12.2)
대학원	2.9	1659.2	1207.4	139.7	241.2(14.5)
입주형태					
자가	46.4	1237.8	889.8	100.7	136.6(11.0)
전세	32.0	1003.5	638.7	91.0	117.6(11.7)
월세	17.7	927.4	622.6	66.7	89.9(9.7)
무상주택 및 사택	3.9	1102.5	707.7	57.4	98.8(9.0)
가구유형					
가구주만취업한 핵가구	47.7	1002.1	727.3	92.0	123.9(12.4)
맞벌이가구	18.2	1303.8	799.2	90.9	138.7(10.6)
모자가구	1.4	638.3	495.8	40.5	48.9(7.7)
노인가구	0.3	852.9	593.1	20.8	47.4(5.5)
기타가구	32.5	1167.0	787.0	78.9	110.0(9.4)

자료: 1991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제1권 가계수지편), 통계청(1993)

¹ 월평균이며 단위는 천원이다.

² 괄호안은 부채부담율로 가계소득중 월평균부채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역자로 나타났다. 가구원이 2인이상인 가구중 67.2%가 근로자가구로서 이들의 평균 월소득은 110만원이며 이중 68.4%인 75만5천원을 소비지출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신규부채이용액은 8만6천원이며 부채상환액은 십이만원으로 가계소득의 10%를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근로자 가구의 가계특성을 살펴보면 평균가구원수가 3.96명으로 39.4%가 4인가구이며 평균 가구주연령은 38.7세였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70% 이상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았으며 전체의 46.4%가 자가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을 보면 전체의 47.7%가 가구주만 취업한 핵가계이고 18.2%가 맞벌이가계이며 편모가계가 1.3%로 나타났다.

2. 가계의 신규부채수요 결정요인

〈표 2〉는 우리 나라 근로자가계의 신규부채수요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로서 가설 1이 입증되었음을 보여준다. 설정계수는 0.652로서 본 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들이 신규부채수요변화의 65.2%를 설명하고 있으며 F-검증결과 실증분석모형이 신규부채수요를 설명하는데 적

합한 모형임이 입증되었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취업원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신규부채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이 신규부채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회귀계수가 0.575로서 소득의 1%증가가 신규부채수요의 0.57%증가를 유도하였음을 의미한다. 부채부담의 경우 근로자 가계의 부채부담이 1% 상승함에 따라 신규부채수요도 0.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의 기존 부채보유액이 신규부채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즉 기존 부채보유액이 많은 가계가 다시 부채를 이용함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과 같이 가구원수와 신규부채보유간에는 양의 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연령이 신규부채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부채수요가 증가하다 어느 수준에 이르러서는 다시 감소하는 이차함수의 형태로 나타났다. 자가보유율은 신규부채수요에 부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평균 자가보유율이 증가함에 따라 신규부채수요는 감소하였다. 이는 가계 부채의 대부분이 주택자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1991년의 경우 도시가계의 부채보유액중 65.1%가 주택관련차용액이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가계의 차용복적도 60-70%가 주택마련을 최우선 순

〈표 2〉 가계의 신규부채수요 결정요인(회귀분석 결과)

설 명 변 수	신규부채수요	
	(회귀계수)	(t-값)
가계소득	0.575***	2.777
부채부담	0.433**	2.037
가구원수	0.630*	1.814
취업원수	-0.005	0.007
가구주연령	2.687***	5.213
가구주연령의 제곱	-0.033***	5.557
자가보유율	-0.022**	2.419
상수항	-56.393***	5.162
adjusted R ²	0.652	
F-값	18.139***	

* p<.10; ** p<.05; *** p<.01

위로 꼽고 있어(한국은행, 1992) 이미 자가를 마련한 경우 이를 위한 신규부채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가계의 부채이용이 소비지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3〉은 가계의 부채이용이 소비지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이다. 이는 가계의 부채이용이 총소비지출과 비목별 소비지출액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본 연구에서 이용한 분석모형이 소비지출의 변화를 70.2%(교양오락비)에서 97%(외식비 이외의 식료품비)정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신규부채이용액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외식비 이외의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및 교육비를 제외한 총소비지출과 8개의 소비항목에 대한 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2가 대다수의 소비비목에 대해 입증되었다. 즉 신규부채이용은 총소비지출, 외식,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교양오락, 교통통신, 개인교통, 기타소비지출 및 잡비지출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신규부채액 변화에 따른 소비지출의 반응정도를 나타낸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총소비지출의 경우 0.093으로서 이는 신규부채이용액이 1% 증가할 때 총소비지출은 0.09%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각 비목별 신규부채수요탄력성을 살펴보면 개인교통비의 경우 가장 큰 0.594로서 신규부채이용이 1% 증가시 개인교통비에 대한 지출은 0.6%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외식비에 대한 지출로 신규부채이용이 1% 증가할 때 외식비에 대한 지출은 0.23% 증가하였으며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에 대한 지출의 신규부채탄력성은 0.229로 나타났다. 교통통신과 교양오락에 대한 지출에 있어 신규부채액의 회귀계수는 각각 0.189와 0.153으로 신규부채이용이 1% 증가하였을 때 교통통신비에 대한 지출은 0.19% 그리고 교양오락비에 대한 지출은 0.15%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피복 및 신발, 잡비 및 기타소비지출의 경우 신규부채이

용이 1% 증가하였을 때 0.08-0.11%의 지출액 증가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지출비목을 필수재와 선택재에 대한 지출로 나누면, 각 가계는 외식비 이외의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등과 같이 필수재적인 성격을 띤 소비비목에 대한 지출에 먼저 예산을 할당한 다음 개인교통비, 외식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및 교양오락비 등과 같은 선택재에 대한 지출에 있어 현재소득을 이용한 예산부족시 부채를 이용한다고 할 수 있겠다.

기존 부채보유액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이용한 변수인 부채부담의 경우 부채부담이 클수록 현재 이용 가능한 자원의 감소로 인해 소비지출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3 또한 대부분의 지출비목에서 입증되었다. 가계소득중 부채상환을 위한 지출이 1% 증가할 경우 각 가계는 총소비지출의 0.17%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의료비와 잡비에 대한 지출의 감소분이 가장 커 각각 0.37%와 0.26%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통통신비, 주거비, 광열수도비의 순으로 지출액을 줄였으며 외식비 이외의 식료품비에 대한 지출은 그 감소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기존에 보유한 부채의 상환을 위한 지출의 증가로 인해 현재 이용 가능한 자원이 감소할 경우 가계는 먼저 선택재적인 성격을 지닌 소비비목의 지출을 줄이며 다음으로 필수재에 대한 지출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식비 이외의 식료품비가 부채부담의 증감에 가장 덜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다음이 광열수도비와 주거비 등과 같은 필수재이고 보건의료비와 잡비 및 교통통신비에 대한 지출을 가장 우선적으로 줄임으로써 자원감소에 대처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는 헤이스(1989)의 가설을 증명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총소비지출 및 소비비목에 대한 소비지출은 현재의 인적소득, 재산소득 및 가계의 시간선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 가설4 또한 대부분의 회귀식에서 입증되었다.

인적소득과 재산소득이 가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총소비지출에 대한 인적소득탄력성

〈표 3〉 가계의 부채이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 (회귀분석 결과)

소비지출비목	신규 부채수요	부채부담	인적소득	재산소득	가구원수	가구주 인령	상수항	adj. R ² (F)
총소비지출	0.093*** (4.660)	-0.169*** (4.456)	0.444*** (13.946)	0.029** (2.135)	0.082*** (3.951)	0.019*** (4.704)	4.553*** (13.471)	0.967*** (386.7)
외식비	0.234*** (3.308)	-0.072 (0.884)	0.806*** (11.547)	0.056** (2.042)	-0.305*** (6.948)	0.007 (0.864)	-2.976*** (4.455)	0.865*** (84.0)
외식비외 식료품비	0.002 (0.055)	-0.114** (2.530)	0.149*** (4.292)	0.010 (0.514)	0.413*** (15.904)	0.008 (1.415)	7.720*** (17.247)***	0.970*** (422.2)
주거비	0.066 (1.103)	-0.167** (1.973)	0.112 (1.022)	0.120** (2.211)**	0.242*** (3.477)	-0.017 (1.169)	6.287*** (4.522)	0.714*** (33.4)
광열수도비	-0.058 (0.900)	-0.133** (2.000)	-0.086 (1.458)	0.076*** (3.243)	0.464*** (10.856)	0.010 (0.566)	9.160*** (15.176)	0.906*** (126.6)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0.229** (2.122)	-0.071 (0.386)	0.140 (1.021)	0.136* (1.700)	0.247*** (2.644)	-0.006 (0.227)	3.826** (2.218)**	0.816*** (58.6)
피복 및 신발	0.114*** (4.872)	-0.082 (1.602)	0.551*** (8.598)	0.024 (0.801)	-0.004 (0.113)	0.003 (0.428)	1.691*** (2.834)	0.902*** (120.3)
보건의료	-0.006 (0.049)	-0.366** (2.519)	0.316** (2.298)	0.048 (0.583)	0.270** (2.519)	0.019 (0.853)	3.037 (1.580)	0.824*** (61.8)
교육	-0.005 (0.030)	-0.112 (0.318)	-0.421 (1.477)	0.235 (1.326)	1.319*** (4.460)	-0.070** (2.474)	11.499*** (4.402)	0.846*** (72.4)***
교양오락	0.153*** (2.715)	-0.125 (1.172)	0.532*** (5.042)	0.092** (2.254)	0.025 (0.368)	-0.012*** (5.042)	0.631 (0.578)	0.702*** (31.6)
교통통신	0.189*** (3.212)	-0.240*** (3.291)	0.551*** (7.533)	0.048 (1.441)	0.000 (0.001)	0.020** (2.067)**	-0.545 (0.672)	0.847*** (72.7)
(개인교통)	0.594*** (1.915)	-0.118 (0.389)	1.326*** (4.678)	0.004*** (0.043)	-0.048 (0.312)	0.080*** (2.667)	-18.814*** (8.138)	0.770*** (44.6)
기타 소비지출	0.084** (2.410)	-0.205*** (3.269)	0.682*** (11.958)	0.022 (0.778)	-0.058* (1.662)	0.035*** (3.329)	-0.331 (0.649)	0.949*** (247.7)
(잡비)	0.086** (2.158)	-0.262*** (3.924)	0.764*** (12.581)	0.019 (0.613)	-0.076** (1.969)	0.047*** (4.305)	-2.258*** (2.968)	0.955*** (276.0)

* p < .10; ** p < .05; *** p < .01

은 0.444이고 재산소득탄력성은 0.029로 나타났다. 이는 인적소득이 1% 상승 할 때 총소비지출은 0.44% 늘어났으며 재산소득이 1% 상승할 경우 총소비지출은 0.03%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인적소득은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및 교육비지출을 제외한 모든 소비비목의 지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개인교통비의 경우 인적소득탄력성이

가장 높아 1.326으로 인적소득 증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출비목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식비, 잡비의 순이었다. 인적소득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주거, 광열수도 그리고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에 대한 지출은 재산소득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산소득의 변화는 외식, 교양오락 및 개인교통에 대한 지출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계구성원의 시간선호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이용된 가구원수와 가구주의 연령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가구원수의 경우 가구당 인원수가 1명 증가함에 따라 총소비지출은 0.8% 증가하며 가구주연령의 증가는 0.2%의 소비지출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가구원수는 외식비와 기타소비지출 및 잡비에 대한 지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외식비 이외의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보건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지출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가구주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통신비, 개인교통비, 기타소비지출, 잡비에 대한 지출은 증가하였으나 교육비와 교양오락비에 대한 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신규부채수요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나타난 부채부담과 신규부채수요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상환으로 인해 이들 가계가 현재의 소비지출을 위한 예산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들 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재무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각 가계는 필수재적인 성격을 띤 소비비목에 대한 지출에 먼저 예산을 할당한 다음 선택재에 대한 지출에 있어 현재소득을 이용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신규부채를 이용하며 기존에 보유한 부채의 상환을 위한 지출의 증가로 인해 현재 이용 가능한 자원이 감소할 경우 먼저 선택재적인 성격을 지닌 소비비목의 지출을 줄이며 다음으로 필수재에 대한 지출을 조정함으로써 부채상환으로 인한 자원감소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가계재정에서 고정적인 지출항목이라 할 수 있는 월부채상환액은 가계의 소비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는 일종의 강제적인 지출로서 '이자'와 더불어 가계수지항목 중 비소비지출에 포함시켜

분류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이용이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기초연구로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한 본 가설의 재검증이 요구된다. 특히 본 연구는 소득계층이라는 집단의 평균치를 이용한 이차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개별 가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개별가계를 대상으로 한 자료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재검증 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가계가 이용할 수 있는 부채는 서로 상이한 특성을 지닌 다양한 부채원(credit sources)으로부터 얻게 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가계부채가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각기 다른 종류의 부채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규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가계부채를 그 특성에 따라 세분하여 이들 각각이 가계의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 보는 것도 유익한 연구라 하겠다.

【참고 문헌】

- 1) 성영애·양세정, 가계의 부채부담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13(1), 1995, 207-219.
- 2) 심영,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4(2), 1993, 29-50.
- 3) 중앙일보, 1995년 10월 30일자.
- 4) 통계청, 1991년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1993.
- 5) 한국은행, 도시가계저축시장조사, 1990, 1992.
- 6) Avery, R.B., Ellihansen, G.E., & Canner, G.B., Survey of Consumer Finances, 1983: A second report, Federal Reserve Bulletin, 70, 1984, 857-868.
- 7) Bryant, W.K., Assets and debts in a consumer portfolio,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0(1), 1986, 19-35.
- 8) Bryant, W.K.,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9) Choe, H. & Johnson, D.P., The demand for consumer installment credit: Stock adjustment model. Proceedings of the 38th Conference of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Columbia, Missouri: University of Missouri, 1992, 155-162.
- 10) Courtless, J.C., The effect of consumer credit on food expenditures, *Family Economic Review*, March, 1971, 22-24.
- 11) DeLuca, B.M. & Bowers, J.S., Determinants of household debt repayment-income ratio, Proceedings of 31st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Columbia, Missouri: University of Missouri, 1985, 175-179.
- 12) Dunkelberg, W.C. & Stafford, F.P., Debt in the consumer portfolio: Evidence from a panel study, *American Economic Review*, 61(4), 1971, 598-613.
- 13) Fisher, J.A., Consumer durable goods expenditures, with major emphasis on the role of assets, credit and inten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58, 1962, 648-657.
- 14) Hamburger, M.J. & Zwick, B., Installment credit controls, consumer expenditures and the allocation of real resources, *The Journal of Finance*, 32(5), 1977, 1557-1569.
- 15) Hayes, D.J., Incorporating credit in demand analysi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3(1), 1989, 1-20.
- 16) Herendeen, J.B., The role of credit in the theory of the household, *Journal of Consumer Affairs*, 8 (2), 1974, 157-181.
- 17) Hira, T.K., Changes in factors influencing consumer debt among Scottish families, 1984-1987, *Journal of Consumer Studies & Home Economics*, 14, 1990, 165-175.
- 18) Kinsey, J. & Lane, S., The effect of debt on perceived household welfar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2(1), 1978, 48-62.
- 19) Kmenta, J., *Elements of econometrics*, 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86.
- 20) Lockett, C.A. & August, J.D., The growth of consumer debt, *Federal Reserve Bulletin*, 1985, 389-402.
- 21) Mishikin, F.S., What depressed the consumer? the household balance sheet and the 1973-75 recess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 1977, 123-174.
- 22) Paquette, L., Credit card balances-Debt or convenience use? *Federal Reserve Board of New York Quarterly Review*, Winter, 1986, 38-40.
- 23) Pearce, D.K., Rising household debt in perspective, *Economic Review of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70, 1985, 3-17.
- 24) Pollin, R., The growth of U.S. household debt: Demand-side influences, *Journal of Macroeconomics*, 10, 1988, 231-248.
- 25) ———, *Deeper in debt: The changing financial conditions of U.S. households*, Washing, DC: Economic Policy Institute, 1990.
- 26) Raymond, K. & Capps, O. Jr., Impact of consumer installment debt on food expenditure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8(1), 1994, 81-95.
- 27) Shim, Young, Consumer debt: Implication for consumption behavior of households in the United state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IL, 1991.
- 28) Smith, J.F., Consumer credit in America: Evidence of financial soundness, *Journal of Retail Banking*, 1(2), 1979, 41-48.
- 29) Sullivan, C. & Worden, D.D., Economic and demographic factors associated with consumer debt use, Credit Research Center, Purdue University, Working Paper No. 52, 1986.
- 30) Toal, W.D., Consumer debt: how severe is the problem? *Review of Business*, 8, 1986/87, 4-9.
- 31) Wasberg, C.A., Hira, T., & Fanslow, A.M., Credit

- card usage and consumer debt burden of household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6, 1992, 19-32.
- 32) Watts, H.W. & Tobin, J., Consumer expenditures and the capital account,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Consumption and Saving*, Philadelphia : Wharton School of Finance and Commerce,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60.
- 33) Wyss, D. & Helderich, A., Household indebtedness and consumer spending, *Review of the U.S. Economy*, Mass.: Data Resource Inc., October, 1986, 18-21.